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1호 [루게 제24409호] 주제 102(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깊이 새긴 인민군 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상한 각오와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랑스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으로도 물고기대풍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고 군인생활을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군인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린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의 충정의 마음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아들딸들을 우리가 맡아 돌봐주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모든 수산부문들에서 언제나 선창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들인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한 자랑스런 성과를

안고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받는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전투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진심으로 되는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시었다.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농공사업공과 함께 수산부문의 열풍도 세차게 일어난 결과 군인들에게 풍음식은 물론 물고기도 정상적으로 먹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이룩한 성과를 통하여 앞

포구마다에서는 만선의 배고통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가 낭독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한 사람, 한사람 직접 수여하시였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몸소 수여해주시는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아 안은 참가자들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넘쳐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시는 영광과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해마다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움으로써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모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참가자들은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해주시였으며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희에 답례하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이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적극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해마다 물고기대풍을 이룩함으로써 군인생활개선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병사 사랑으로 끝없이 물결치는 조국의 바다우에 언제나 만년기를 휘날림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모도반

사 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백두의 선군명장의 힘찬 발걸음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4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과 더불어 우리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빛내어 나갈수 있는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높은 존엄과 행복한 생활도,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강성국가에 비약해나가는 선군조선의 크나큰 활력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주권의 국가건설명도업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5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현세만에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합일하는 파시르, 인류헌정사에 특기할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은 수령생애업실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정화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

회주의를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와 번영의 역사를 꽃피어 빛내여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서 행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서 행하는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세월의 도전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 온 사회주의,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자기 발전의 전로정을 가장 빛나는 승리와 번영으로 수놓아온 사회주의가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세상에 돌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이 있고 필승불패성이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고있으며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철저히 보장해 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공화국의 헌법에 구체되어있는 공민의 기본권리는 곧 인민이 지니고 있는 자주적권리를 법화한것이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기초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대외적으로 옹호하고 활동을 조직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정권의 사명으로 되고있다.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과 국가의 혁명적립장은 인민정치, 선군정치를 비롯한 독창적인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웠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배풀어지는 인민적시책들에도 깃들여있다. 제국주의의 침략한 정치군사대결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역센 기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존엄높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서 되고 전체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아름다운 생활을 꽃피워나가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가 새로운 주제 100년대 진군을 향도해나가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것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드림같은 신념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는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제정된 법률도 각이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제도도, 국가의 모든 법률도 인민중시, 인민사랑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

는 나라는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은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 주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조국보위와 총대를 어깨에 틀어낸 혁명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위용될치고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꾼, 인민의 복부자로 되고있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지하여!》, 이것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당이 높이 들고 나가는 혁명적주조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혁명한 명도밑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수마구락부와 같은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솟아나고 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되어 이 땅위에 로동당만세소리가, 우리 식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날은 멀지 않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펼쳐나가기 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수행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제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식 사

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기초이며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꽃피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와 고한 시련을 헤치시며 마련하신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후손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사회주의조국 땅위에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후대의 후대들도 절세위인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고 선군의 위업을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지니고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

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원수님의 유일적 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고 건설을 오직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기 한다. 일관 단심 자기 명도자를 따르며 수령결사옹위의 삶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품도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깨끗한 망심과 의리로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혁명동지, 진정한 전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비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범부생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기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품드는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요소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법기관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를 충고한 사명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입살하려는 온갖 원수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 누구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 식의 고상한 생활양식과 생활규범대로 살며 일해나가기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은 공화국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마땅한 본분이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뜻깊은 올해를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

여 온 그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건설의 대원기를 열어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오늘의 대건설전투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기어올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과학의 기세드높이 비약하고 또 비약해나가기려는 원대한 포부와 배짱,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차넘쳐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이신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본받아 한가지 일을 해도 승고한 공민적자각과 랑심을 가지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김정일에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사회주의의 선경으로 꾸리며 조국의 힘찬 전진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일들을 적극 찾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꽃피어 빛내이고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을 표창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보기 드문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을 표창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 김일만 | 황영철 | 조기선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리영철 | 박무진 | 강명수 | |
| 고문하 | 안창만 | 박호영 | 리명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년하장을 유용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판단,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6일 무판단 이 하향 참사단 단장인 하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반등고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수여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받은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 최금성 | 김동철 | 법동철 | 윤석문 |
| 심 룡 | 리광석 | 고경룡 | 김히욱 |
| 리강일 | 한경철 | 유성근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22호 주제102(2013)년 12월 20일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칭호,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불타는 일념안고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 | | |
|-----------|-----------------|----------|------|
| 김정일훈장 1명 | 공훈어부칭호 4명 | 국가훈장 제2급 | 69명 |
| 진봉준 | 김조경 김경석 박용남 함동찬 | 국가훈장 제3급 | 138명 |
| 로력영웅칭호 2명 | 국가훈장 제1급 | 29명 | 2명 |
| 윤용일 방철호 | 로력훈장 | 17명 | 229명 |
| | | | 491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진행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열린 이번 회의는 뜻깊은 올해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보기 드문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자랑찬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에게 보내주자!》, 《때때로 담고도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최룡해동지, 장정남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 군관들,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올해 물고기잡이 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킨 모범적인 어로공, 선장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인들에게 사철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올해에 회한한 물고기 수산부문을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평양에 불러주시고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례를 안겨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에는 병사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헌신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현대정권무력건설의 초시기 인민군대에 수산부문사업을 조직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시, 매 단계마다 수산부문발달과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수산업의 강화발전엔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숭고한 병사관을 지니시고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오셨었다.

보고자는 우리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수산부문을 강하게 내밀어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사회주의경

쟁을 힘있게 벌려 전군이 물고기잡이로 들끓게 하시였다. 수산부문을 활성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어로작업을 현대화할수 있는 설비들과 어구들을 갖춘 만능고기배들을 보내주시어 날마다 만진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도록 하시였다. 전쟁의 불기름이 밀려오셨던 때에 전투환성이 아니라 군인들을 위한 물고기잡이배를 띄워주시고 친히 고기배의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가 쏟아지게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건설은 길이 전해질것이다.

보고자는 전체 회의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이 나라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사랑의 손길로 오늘의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영원 불멸하라, 김일성 - 김정일 헌법이여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국찬가》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나오고 수천년을 두고 바라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이날을 맞은 우리의 감회는 뉴타르다.
 김일성-김정일헌법!
 력사의 어느 시대에 선대수령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이런 주체의 사회주의정체성이 존재한적 있었었나?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표된 때로부터 40여년,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명도밑에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며 전진해온 사회주의조국의 긍

지높은 넋대들을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가 차년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에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결격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며 그 위력은

전적으로 수령의 사상과 명도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 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어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하시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주체 37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조직과 활동의 법칙이초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발전된 현실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새 헌법작업을 더는 미룰수 없는 정치문제제로 제기하였다.
 주체 60(1971)년초 당중앙위

원회 정치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새 헌법을 작성할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국가기구체제와 그 권능만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헌법들과는 달리 구성과 내용에서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 시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결심이었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100 조항이 넘는 새 헌법초안의 조문 하나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신 낫과 밤은 그 얼마였는가.
 주체 61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정식 채택되었다.
 사회주의헌법의 발표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미를 가지는 특기할 력사적사건이었다.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고 아버지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높이 모신 이 력사적사건을 두고 온 나라가 김일성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기쁨에 설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시어주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민족의 아버이를 너무나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떨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총정의 세계는 참으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얼마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을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었다고,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 우리결을 떠나시였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호모를 받아오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만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받드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숭고한 총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때까지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있는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께서서 작성하시다니 수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수 없었다고, 이제는 수령님께서서 지시 않는것만큼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서문초안을 한자한자 작성하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승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는 감동어린 화폭이 펼쳐졌으며 주체 87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과 특출한 위업적공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서문의 구절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사람들 누구나 절감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총정의 세계였다.
 김정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사건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칙무기를 틀어쥐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끌어나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력사의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었다.
 력사와 전통은 계속될 때 더욱 빛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 때 대하여 발기하시고 헌법의 수정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세치국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으로 높이 모실때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법으로 채택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초안을 놓고 온 나라가 잠든 깊은 밤에도, 험한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도 사색을 기울여오시였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를 우리 다는 모른다. 경애하는 그의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명도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실성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선태양궁전법을 채택할때 대하여 결정하시었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력사의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었다.
 력사와 전통은 계속될 때 더욱 빛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 때 대하여 발기하시고 헌법의 수정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세치국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서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진행

3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먹이고 종업원들에게까지 공급해야 합니다.』
 보고자는 수산부문을 활성화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가는 투쟁속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모든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올해의 물고기잡이성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히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 어떤 역풍속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든든히 준비하여야 한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물고기잡이계획을 완수하고 불이 크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선창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물고기저장고와 냉동능력을 높이고 가공설비를 현대화하며 구분대들에 대한 공급계획을 철저히 세워 군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고기를 먹여야 한다.
 보고자는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다음해에도 풍요한 가을과 같은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지체인 윤용일은 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하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어로전투에서 집단적합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새 부두를 건설하고 방파제들을 쌓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어로공들이 앞선 어로작업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로 진공펌프를 만들어 물고기부림시간을 단축하고 단번에 수심의 물고기를 처리할수 있는 고기받이장을 건설하여 배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로공들은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어서라도 기어이 물고기잡이과제를 수행할 일념으로 먼바다에 나가 집결은 파도와 싸우면서 집중어로전투를 벌임으로써 연속 만선기를 날렸다고 강조하였다.
 일군들이 고기배를 타고 물고기잡이전투에 참가하여 어로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고 가공작업반원들은 물고기저장고와 냉동 설비를 위한 지열전을 벌였으며 군인 가족들을 힘있는 지원사업을 벌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물고기잡이계획을 완수하고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으며 친히 사업소를 찾으시어 친정에 당도록 쌓아올린 평동물고기들을 보시고 포탄장사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병기창장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었다고 말하였다.
 군관들이 박영철, 리명철은 우리 병사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물고기잡이와 수산기지의 토대축성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고기배들을 개조하고 앞선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강조하였다.
 수산물가공과 포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잡은 물고기가 군인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당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서로 돕고 이끌고 자제의 힘과 기술로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만선의 발동소리를 높이 울려온데 대한 어로공 열정, 기만장 김윤진의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고 어로공들의 마음속에 맺힌 문제를 풀어주신 신념의 대를 굳세게 세워주셨으며 배기자의 수명을 높이고 판매에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아글라글 노력함으로써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신장 최금성은 모든 어로공들을 짧은 기간에 그 어떤 작업도 지렛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만능어로공으로 준비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맡겨진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여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고기배를 타고 어로전투를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할 각오만 투철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배인들인 진봉준, 리영호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산업 발전시킴에 대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전개하여 물고기잡이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물고기잡이설비의 현대화, 만능화, 과학적인 어로방법의 탐구도입으로 지난 기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수호전의 병기창에 총포탄을 채워넣는 심정으로 더 풍요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토론자들은 평범한 어로공들에게 한생도록 잊지 못할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례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내해같은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에게 보내줄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회의에서는 전군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호소문은 전체 회의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로 만선의 배고소리를 더 힘차게 울리며 맑은 초승을 사회주의수호전의 믿음직한 제1병기창으로 훌륭히 전진시킬 보양의 맹세, 총정의 맹세를 다지면서 전군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호소문을 보낸다고 지적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명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모두의 값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라면 얼마든지 해마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이 올해의 실천투쟁속에서 확증된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물고기잡이전투명령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자.
 오늘 우리가 벌리는 물고기잡이전투는 부대, 구분대의 휘사장마다에 물고기가 차 넘치게 하고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딸지 않고 푸짐하게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전투이다.
 우리의 고기배는 단순한 어선이라고 전투합선이며 우리가 휘날리는 만선기는 승리의 군기이다.
 호소문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성과를 확대하여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며 첫갈롭도 정상적으로 먹일수 있게 당이 제시한 물고기생산고지를 기어이 정면탈해하여 지적하였다.
 펄펄 끓는 생선국을 들며 기뻐하는 병사들의 웃음에서 혁명하는 맛을 느끼고 일당백의 장수힘 넘쳐나 훈련장을 총형투진하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혁신적투쟁정신의 체현자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다는 드넓고 어항조진은 부단히 변해도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 대

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자력생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최첨단과학기술과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받아들여 밀려드는 물고기대풍을 제때에 찾아내고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있어 집중적인 어로전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배수리와 어구보수를 제때에 하여 모든 고기배들이 언제나 출항할수 있게 하며 배수리기일을 줄이고 고기배들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년간 출어일수를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바다로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고 가가며 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면서 출어회당 어획고를 높일수 있게 어업준비를 원만히 갖추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고기배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그에 완전히 정정하여 은정어린 《단풍》호투이 언제나 전투에서 만선기를 휘날리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배가들물과 물고기저장능력을 높이고 가공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애써 잡은 물고기들을 한마리도 허실함이 없이 군인들의 식탁에 가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전당적으로 하여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비결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있으

며 전군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따라배워야 할 정진력의 본보기는 철명정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철명정신은 《병사들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높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철명정정,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고귀한 정신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앞장서 실현하여 물고기잡이의 불화를 쫓겨든 선구자의 정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병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고결한 정신, 이것이 철명정신의 특징이다.
 『철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수산부문에 주신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주요이다.
 수산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수산사업소별, 수산부담단위별, 고기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누구나 철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하자.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전행하여 동해와 서해의 전역들에서 만선의 배고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 모두가 물고기잡이에 전진전력하게 하자.
 통일적인 수산시위체제와 장악보급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그를 통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배기있게 짜고들자.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사회주의본래의 요구에 맞게 어로공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며 경제적리력을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간직하여 모두가 기업관리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 되게 하자.
 모든 고기배들이 만선기만을 낚을수 있게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적극 따라배우자.
 호소문은 뜻깊은 올해에 우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로 온 나라에 통장훈을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배길은 오직 기적에서 기적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총정과 위훈의 배길로 이어야 한다.
 올해의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양양된 열의를 고조시켜 다음해에 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호소문은 전군의 수산부문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마다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며 나라의 수산업을 활성화한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불씨가 되고 돌격대가 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회의는 《김정은장군 특출모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요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마시명숙도》 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어로전투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군인생활,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